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정 종 환

Q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소감과 공단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A 제가 제6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고속철도와 참으로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짓는 일을 교통부의 과장으로서 참여했고, 20년 만에 고속철도의 1단계 마무리를 하게된 인연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으로는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며, 2단계 경주 신설건설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공단의 위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교통 영역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개통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민원 등이 제기되어온 2단계 사업도 몸을 던져서 열과 성을 다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하루 빨리 정상궤도를 찾아 공사를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의 구조개혁이란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도의 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철도의 운영을 경쟁력 있게 효율적

으로 경영하여야 된다는 전제 하에 철도구조개혁이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리 공단이 확실한 비전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장래의 구조조정의 불안에서 해방되어 열심히,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혜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아주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서, 현장에 있는 의견이 최고경영진에게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각 기능간에 벽이 무너져 서로 전체를 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며 벤치마킹하는 자세로 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언제든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고속전철 개통구간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통시기는 언제인지요.

A 경부고속철도의 제 1단계 개통시기는 당초 서울~대전구간이 금년 12월, 서울~부산 구간은 내년 4월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현재의 서울~대전구간의 공정은 98.2%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



나, 2회에 걸친 고속철도 개통을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대전구간의 개통을 서울~부산 구간 개통과 통합하여 내년 4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된 이유는 이원화된 개통시기로 인하여 불과 4개월 사이에 열차시각표를 4회나 변경해야 하므로 고속 열차 이용객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두 번에 걸친 개통행사로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도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고속열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고속차량의 시운전 기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04. 4월 대구이남 기존선을 이용한 서울~부산구간을 1단계로 개통한 후, 완전 개통을 위하여 2단계 구간 공사를 200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대구이남 구간 중 대구~경주간 6개 공구는 활발히 시공 중에 있으나, 경주~부산 구간은 천성산·금정산 구간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훼손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와 환경단체 공동으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본 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 중 노선 재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므로 노선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통시기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호남고속철도 분기를 놓고 대전, 충남, 충북의 입장이 다른데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A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01. 5월부터 금년 9월 완료예정인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노선, 정차역 및 분기역, 사업비, 건설기간 등의 조사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이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현황조사와 노선 및 정차장 그리고 말씀하신 천안, 오송, 대전의 분기역에 대한 각 대안별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입지 검토 시 고속철도 분기역이 중요한 요

소가 되므로 분기역 결정은 신행정수도 입지 검토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행정수도입지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와의 관계는,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과 충청지역과의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요.

A 고속철도 개통 시 서울~대전구간은 현재 기존 새마을 열차로 1시간 42분 소요되던 운행시간이 50분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교육 및 산업시설 등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도도 더욱 높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 입지 선정시도 전국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아주 중요한 입지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정부 고속철도노선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등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고향이 충남 청양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지역민에게 한 말씀 하시지요.

A 앞으로 11개월 후인 2004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대전에서 천안까지는 16분, 서울·대구까지는 50분정도가 소요되므로 통근·통학이 가능해질 것이며, 부산이나 목포까지도 2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므로 충남·대전지역 발전에 우리 고속철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시간거리의 단축은 필연적으로 문화, 경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므로 충남·대전지역 주민께서는 고속철도의 개통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